

## Session 21 Discipleship and Leadership Lessons (Lk. 11-12)

### 제 21 강 제자도와 리더십 교훈 (눅 11-12 장)

#### I. REVIEW: SENDING OUT HIS SERVANTS—WHAT TO DO (LK. 10:1-20)

복습: 그분의 종들을 보내심- 해야 할 것 (눅 10:1-20)

- A. Jesus taught on discipleship—He commissioned the Seventy to preach in Perea and Judea (10:1-20). He continued to teach on discipleship highlighting, the two great commands (10:25-42)—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emphasizes the second commandment (10:30-37) and the extravagant devotion of Mary of Bethany emphasizes the first commandment (10:38-42). Then He spoke on partnership with God in every area of their life by growing in prayer (Lk. 11:1-13).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심- 그분은 칠십인을 보내셔서 베레아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10:1-20).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두 개의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다 (10:25-42)- 선한 사마리아인은 둘째 계명을 강조하고 (10:30-37), 베다니 마리아의 아낌 없는 헌신은 첫째 계명을 강조한다 (10:38-42). 그 뒤에 그분은 기도의 성장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눅 11:1-13).

- B. Jesus sent out the Twelve (Lk. 9; cf. Mt. 10) and the Seventy (Lk. 10)—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what He said to each group. See *Session 14 The Commissioning of the Twelve*. He gave timeless principles for those who are engaged in traveling ministry or missionary work (Lk. 10:1-20; cf. Mt. 10:1-42). There are many leadership values and principles embodied in these two passages. In both passages, He emphasized various principles—*simplicity*, the need for a sense of *urgency* about their mission, serving with *dependence* on God, *connecting* to the people they serve, and more.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보내셨고 (눅 9 장; 비교 마 10 장), 칠십인을 보내셨다 (눅 10 장)- 이 두 그룹에게 말씀하신 것에는 많은 유사한 점들이 있다 (제 14 장 열 두 사도를 세워서 보내심 참조). 그분은 선교 사역이나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원칙들을 세워주셨다 (눅 10:1-20; 비교 마 10:1-42). 이 두 말씀에는 리더십에 대한 가치관과 원칙들이 많이 담겨있다. 그분은 다양한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겸소함**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에 대한 **긴급성**을 느낄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1. Jesus gave a clear ministry mandate (Mt. 10:5-8; Lk. 10:9), principles to embrace when traveling (Mt. 10:9-15; Lk. 10:3-8), the expectation for certain persecution (Mt. 10:16-39), and a strong encouragement related to eternal rewards (Mt. 10:40-42; Lk. 10:20).

예수님은 명확한 사역 위임 (마 10:5-8; 눅 10:9)과 원칙들을 주셨는데, 언제 여행해야 하는지 (마 10:9-15; 눅 10:3-8), 특정한 핍박에 대해 대비하는 것 (마 10:16-39),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관련해서 크게 격려하셨다 (마 10:40-42; 눅 10:20).

2. Jesus taught principles related to God’s judgment—with greater privilege and blessing comes a higher standard of evaluation (judgment) in the age to come. The final judgment will be less severe on the people of Sodom than on those who rejected the Seventy (Lk. 10:12-15).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 가르치셨다- 더 큰 특권과 축복은 장차 올 세대에 더 높은 수준의 평가(심판)로 올 것이라고 하셨다. 칠십인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할 최후 심판이 소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고 하셨다 (눅 10:12-15).

## II. JESUS ACCUSED OF USING SATAN’S POWER TO HEAL PEOPLE (LK. 11:14-26)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로 사람들을 고치신다고 참소당하심 (눅 11:14-26)

- A. Jesus concluded His teaching on prayer with a promise of releasing a greater measure of the Spirit to those who ask persistently (Lk. 11:13). However, an increase of God’s blessing indicated by a greater measure of the Spirit’s ministry leads to greater responsibility before God and a greater counterattack of the enemy—and even setbacks to those not continuing to obey God (Lk. 11:26).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더 큰 분량의 부으심을 약속하셨다 (눅 11:13).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더 커짐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가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원수의 공격도 더 많아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눅 11:26).

<sup>13</sup>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Lk. 11:13)

<sup>13</sup>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 B. Jesus operat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via an overflow of His prayer life. The religious leaders attacked Him, accusing Him of using Satan’s power to heal people (Lk. 11:14-26; cf. Mt. 12:22-37; Mk. 3:19-30). Later, Jesus described the setback of those who experience God’s liberating power, but do not continue to walk with the Lord—the last state is worse than the first (11:26).

예수님은 기도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사단의 권세로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참소했다 (눅 11:14-26; 비교 마 12:22-37; 막 3:19-30).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유케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나중 상태가 처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셨다 (11:26).

<sup>14</sup> *He was casting out a demon...<sup>15</sup> But some of them said, “He casts out demons by Beelzebub, the ruler of the demons”...<sup>17</sup> But He, knowing their thoughts, said...<sup>20</sup> “But if I cast out demons... surely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sup>21</sup> When a strong man [a demon], fully armed, guards his own palace [booty]...<sup>22</sup> But when [Jesus] a stronger than he ...overcomes him...*

<sup>24</sup> *When an unclean spirit goes out of a man... [the demon] says, ‘I will return to my house from which I came’...<sup>26</sup> he goes and takes with him seven other spirits more wicked than himself, and they enter and dwell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at man is worse than the first.” (Lk. 11:14-26)*

<sup>14</sup>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sup>15</sup>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sup>17</sup>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sup>20</sup> 그러나 내가 만일...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sup>21</sup> 강한 자[귀신]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전리품]을 지킬 때에는 ...<sup>22</sup> 더 강한 자[예수님]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sup>24</sup>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이에 [귀신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sup>26</sup>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눅 11:14-26)

### III. THE SIGN OF JONAH AND GOD'S JUDGMENT (LK. 11:29-32)

요나의 표적과 하나님의 심판 (눅 11:29-32)

- A. Jesus came to earth during an evil generation whose condemnation at the final judgment will be confirmed by people from previous generations (Lk.11:29-32; cf. Mt. 12:38-42; Mk. 8:11-12).

예수님은 악한 세대 가운데 이 땅에 오셨는데, 최후의 심판 날에 이 세대들에 대한 책망은 그 전 세대들로 부터 확증이 될 것이다 (눅 11:29-32; 비교 마 12:38-42; 막 8:11-12).

***29While the crowds were thickly gathered together, He began to say, “This is an evil generation. It seeks a sign, and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Jonah...<sup>30</sup>For as Jonah became a sign to the Ninevites, so also the Son of Man will be to this generation. <sup>31</sup>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up in the judgment with the men of this generation and condemn them, for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and indeed a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sup>32</sup>The men of Nineveh will rise up in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indeed a greater than Jonah is here.” (Lk. 11:29-32)***

<sup>29</sup>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sup>30</sup>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sup>31</sup>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sup>32</sup>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눅 11:29-32)

***28Do not marvel at this; for the hour is coming in which all who are in the graves will hear His voice <sup>29</sup>and come forth—those who have done good, to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those who have done evil, to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Jn. 5:28-29)***

- B. The Queen of the South (Sheba) travelled a long way to hear Solomon (1 Kgs. 10:1-13), yet the people of Israel rejected Jesus' wisdom which was far greater than Solomon's. The people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yet Jesus' hearers did not repent when hearing Jesus preach.

남쪽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자 먼 길을 여행해서 찾아왔는데 (왕상 10:1-13),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를 거절했다.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은 회개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 IV. DISCIPLESHIP LESSONS: WOES TO THE PHARISEES—WHAT NOT TO DO (LK. 11:37-54)

제자도 교훈: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눅 11:37-54)

- A. Jesus pronounced woes to the scribes and Pharisees (Lk. 11:37-54). While eating a meal with a group of religious leaders (11:37, 45), a Pharisee criticized Jesus for neglecting the ceremonial washing before He ate. Jesus used this occasion to expose their hypocrisy. Jesus gave seven rebukes—one for greed, followed by six woes. Each woe identified an external religious performance to appear godly in the eyes of people while neglecting to walk out true godliness.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눅 11:37-54).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식사 전에 씻어야 하는 예식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사용하여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일곱 가지의 책망을 하셨는데, 탐욕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여섯가지 화에 대해 말씀하셨다. 각각의 화는 외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진정한 경건이 아닌 사람들의 눈 앞에서 경건한척하는 것이었다.

<sup>37</sup>...*a certain Pharisee asked Him to dine with him...*<sup>38</sup>*the Pharisee...marveled that He had not first washed before dinner.* <sup>39</sup>*Then the Lord said to him, "Now you Pharisees make the outside of the cup and dish clean, but your inward part is full of greed and wickedness.* <sup>40</sup>*Foolish ones!...*

<sup>41</sup>*Rather give alms of such things as you have; then...all things are clean to you.* (Lk. 11:37-41)

<sup>37</sup>...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sup>38</sup>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sup>39</sup>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sup>40</sup>어리석은 자들아 ...<sup>41</sup>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눅 11:37-41)

- B. **Greed:** In context to greed, we are to act in the opposite spirit by giving generously to those in need. In this way, we cooperate with the Holy Spirit in the process of cleansing our heart (11:41).

**탐욕:** 탐욕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는 이것과는 반대의 영으로 행해야 하는데, 곧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후하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는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다 (11:41).

- C. Woe #1—This was a rebuke about over-emphasizing small things and neglecting important things. The Pharisees tithed meticulously, even including garden herbs. Jesus affirmed that they ought to have done this without neglected things that are more important—social justice and love for God.

첫 번째 화- 이것은 작은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십일조를 바치는데, 심지어 정원의 허브에 대해서도 십일조를 한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들, 곧 사회 정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히려 소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다.

<sup>42</sup>*But woe to you Pharisees! For you tithe mint and rue and all manner of herbs, and pass by justice and the love of God. These you ought to have done, without leaving the others undone.* (Lk. 11:42)

<sup>42</sup>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눅 11:42)

D. Woe #2—This was a rebuke of their love of being honored and seeking public recognition.

두 번째 화- 이것은 높임을 받기 원하고 공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sup>43</sup>*Woe to you Pharisees! For you love the bes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Lk. 11:43)*

<sup>43</sup>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눅 11:43)

E. Woe #3—This was a rebuke for defiling people by their teachings and practices. The Pharisees were careful to avoid touching graves so not be ritually defiled by them. Yet, they defiled those who had contact with them just as people who unknowingly walk over unmarked graves are defiled (Num. 19:16). Their followers were unaware that contact with the Pharisees had harmed them.

세 번째 화-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로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만지는 것을 피하는데 그것을 만짐으로써 예식법상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표시 안 된 무덤을 모르고 지나갔을 때도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다 (민 19:16).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이들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sup>44</sup>*Woe to you...for you are like graves which are not seen, and the men who walk over them are not aware of them. (Lk. 11:44)*

<sup>44</sup> 화 있을진저 너희여...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눅 11:44)

F. Woe #4—This was a rebuke for creating many additional laws not in the Scripture, then interpreting them so strictly that it placed a heavy burden on people, making serving God impossible for many. They made no attempt to help people keep all these laws and cleverly found ways to avoid upholding these many laws themselves while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y fully obeyed them.

네 번째 화- 이것은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율법으로 많이 덧붙이고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망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그 많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도 교묘하게 피해갔다.

<sup>46</sup>*Woe to you...for you load men with burdens hard to bear, and you yourselves do not touch the burdens with one of your fingers. (Lk. 11:46)*

<sup>46</sup>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눅 11:46)

- G. Woe #5—This was a rebuke of their hypocrisy for claiming to honor the prophets while refusing to embrace their messages as evidenced by turning people away from the prophets that God recently sent to them—Jesus and John the Baptist. In this they wer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ir forefathers who killed the prophets. By building tombs as monuments to the prophets, they appeared to honor them, yet by rejecting Jesus and John they endorsed what their fathers had done.

다섯 번째 화- 이것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부하면서 그들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한 책망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선조들의 전철을 밟았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기념비로 만듦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행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선조들의 길을 따랐다.

<sup>47</sup> *Woe to you! For you build the tombs of the prophets, and your fathers killed them. <sup>48</sup> *In fact, you bear witness that you approve the deeds of your fathers...* (Lk. 11:47-48)*

<sup>47</sup>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sup>48</sup>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눅 11:47-48)

- H. Woe #6—This was a rebuke for taking away the key to knowing God and the Scripture. As the leading teachers of the Scripture, their false interpretations and many additional laws and traditions confused the people, thus depriving them of key knowledge—insight into God’s plan of salvation.

여섯 번째 화- 하나님과 말씀을 알게 하는 열쇠를 빼앗아간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사로서, 그들은 잘못 해석할 뿐 아니라 많은 율법과 전통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잃게 만들었다.

<sup>52</sup> *Woe to you lawyers! For you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You did not enter in yourselves, and those who were entering in you hindered.* (Lk. 11:52)

<sup>52</sup>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눅 11:52)

## V. ENCOURAGEMENT IN CONTEXT TO PERSECUTION (LK. 12:1-12)

핍박에 대한 격려 (눅 12:1-11)

- A. Jesus was preparing His disciples to stand strong in the face of the coming persecution (12:1-12). Verse 1 ties the current section with the one preceding it. This message continues from 12:1 to 13:8. He had just rebuked the Pharisees (11:39-52), which enraged them against Jesus and His disciples. Now He warns His disciples to beware of their malicious agendas, but not to fear them (12:1-3).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준비시켜 다가올 핍박에 강건하게 맞설 수 있게 하셨다 (12:1-12). 1 절은 앞 장과 연결된 것이다. 이 메시지는 12:1 절에서 부터 13:8 절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11:39-52),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계획들에 대해 주의하되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경고하신다 (12:1-3).

***<sup>1</sup>In the meantime, when an innumerable multitude...gathered together...He began to say...,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sup>2</sup>For there is nothing...hidden that will not be known. <sup>3</sup>Therefore whatever you have spoken in the dark will be heard in the light, and what you have spoken in the ear...will be proclaimed on the housetops.” (Lk. 12:1-3)***

***<sup>1</sup>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 예수께서 ...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sup>2</sup>...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sup>3</sup>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눅 12:1-3)***

- B. Jesus compared the Pharisees’ teaching to leaven or yeast which has a hidden, all-pervasive effect (Mt. 16:6, 12; Mk. 8:15). It starts off small, but over time it infiltrates and affects the whole loaf. These proverbs are *against* the Pharisees and *for* the persecuted believer. Who people are will be exposed. Hypocrisy is eventually expressed in one’s life and exposed in the final judgment. The setting of our heart to be faithful to Jesus is expressed in us and will be recognized on the last day.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감추어졌으나 널리 퍼져있는 누룩 혹은 이스트에 비유하셨다 (마 16:6, 12; 막 8:15). 이것은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빵 전체에 침투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핍박받는 신자들을 **지지하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위선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표현되는 것이지만 최후의 심판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신실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표현되지만 마지막 날에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 C. Encouragement not to be afraid in the face of persecution (12:4-12): Our Father sees everything and He cares deeply for us (12:6-7), Jesus will “confess us”—which includes telling our story (12:8), and the Spirit will help us to answer our adversaries, even in legal court systems (12:12).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 (12:4-12):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깊이 돌보신다 (12:6-7).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12:8)이며, 성령님이 우리가 대적들 앞에서나 법정에서도 마땅히 대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12:12).

***<sup>4</sup>...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have no more that they can do. <sup>5</sup>But...fear Him who, after He has killed, has power to cast into hell!... <sup>6</sup>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copper coins? An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sup>7</sup>But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Do not fear...you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sup>8</sup>...whoever confesses Me before men, him the Son of Man also will confess before the angels of God. <sup>9</sup>But he who denies Me before men will be denied before the angels of God...<sup>11</sup>Now when they bring you to the...magistrates and authorities, do not worry about... what you should***

answer...<sup>12</sup>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ought to say.  
(Lk. 12:4-12)

<sup>4</sup>...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sup>5</sup>...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sup>6</sup>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sup>7</sup>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sup>8</sup> ...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sup>9</sup>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sup>11</sup>사람이 너희를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sup>12</sup>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눅 12:4-12)

## VI. LEADERSHIP LESSONS: RESIST COVETOUSNESS AND ANXIETY (LK. 12:13-34)

리더십 교훈: 탐심과 염려의 유혹을 거부하라 (눅 12:13-34)

- A. Jesus taught His disciples to resist covetousness and anxiety (Lk. 12:13-34). He addressed the disciples' attitude towards money and resources by calling them to cultivate an eternal perspective. Greed or covetousness is one of the greatest temptations that His disciples must overcome. It has slowly and subtly drawn many of God's servants from a lifestyle of faithfulness.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탐심과 염려를 거부하라고 가르치셨다 (눅 12:13-34). 그분은 제자들에게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관점을 개발하도록 초청하셨다. 탐욕 혹은 탐심은 제자들이 극복해야만 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한 삶으로부터 교묘하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 B. A man asked Jesus to make a legal ruling related to his inheritance—dividing their family estate. The Old Testament has guidelines regarding property rights (Deut. 21:15-17; Num. 27:1-11; 36:7-9). Jesus addressed his greater need: to understand how money related to God's purpose for his life.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족의 유산을 나누어 자신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약은 재산권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신 21:15-17; 민 27:1-11; 36:7-9).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돈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함을 말씀하셨다.

<sup>13</sup>Then one from the crowd said...,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sup>14</sup>But He said to him, "Man, who made Me a judge...over you?"<sup>15</sup>And He said..., "Beware of covetousness, for one'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the things he possesses."

(Lk. 12:13-15)

<sup>13</sup>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sup>14</sup>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세웠느냐 하시고 <sup>15</sup>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눅 12:13-15)



- C. A foundational kingdom principle is to understand that our life does not consist of things. In other words, our emotional fulfillment now and our life story in the age to come are not based on gaining more money and influence. Neither will be part of the narrative of our life in eternity. It is natural to seek more money and honor (influence), but most do not have a kingdom perspective of them.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칙은 우리의 삶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느끼는 성취감이나 장차 올 세대에서 우리의 삶은 더 많은 돈이나 영향력을 얻는 것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영원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많은 돈과 명예(영향력)를 구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 D. Jesus taught the parable of the foolish rich man (12:16-21) to emphasize that it is possible to gain treasure in heaven and that only what is “invested” in obedience to God lasts beyond the grave.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12:16-21) 하늘의 보물을 얻는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심는’ 것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sup>16</sup>*He spoke a parable to them, saying: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yielded plentifully ...*

<sup>18</sup>*So he said, ‘...I will pull down my barns and build greater,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crops...*

<sup>19</sup>*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sup>20</sup>*But God said to him, ‘**Fool! This night your soul will be required of you; ...**’* <sup>21</sup>*So is he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Lk. 12:16-21)*

<sup>16</sup>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sup>18</sup> 또 이르되 내가 ...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sup>19</sup>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sup>20</sup>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sup>21</sup>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눅 12:16-21)

- E. God defines a fool as a person who only enriches himself without laying up treasure in heaven. Only by using our money in a way that expresses love, humility, and generous can it be exchanged for treasure in heaven. Salvation is by grace alone, but the Lord rewards our voluntary love.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셨다. 우리의 돈을 사랑, 겸손, 그리고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만이 하늘의 보물로 쌓여질 수 있다. 구원은 은혜로만 얻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

- F. Jesus addressed anxiety, which is one root cause behind wrong views of money (12:22-34; cf. Mt. 6:25-34). He addresses how we pursue our destiny related to our finances and daily provision. The way we are to pursue our destiny (life goals) is radically different from how the world pursues it.

예수님은 염려가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하는 뿌리임을 말씀하신다 (12:22-34; 비교 마 6:25-34). 그분은 우리가 재정 및 매일의 공급과 연관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다. 우리의 부르심(인생 목적)을 추구하는 방식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sup>22</sup>...do not worry about your life...<sup>23</sup>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is more than clothing.

<sup>24</sup>Consider the ravens...God feeds them. Of how much more value are you than the birds?...

<sup>27</sup>Consider the lilies...<sup>28</sup>If then God so clothes the grass, which today is in the field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sup>29</sup>Do not...have an anxious mind.

<sup>30</sup>For...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se things. <sup>31</sup>But seek the kingdom of God,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sup>32</sup>Do not fear...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 <sup>33</sup>Sell what you have and give alms; provide yourselves...a treasure in the heavens that does not fail...<sup>34</sup>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Lk. 12:22-34)

<sup>22</sup>...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sup>23</sup>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sup>24</sup> 까마귀를 생각하라...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sup>27</sup>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sup>28</sup>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sup>29</sup>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sup>30</sup>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sup>31</sup>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up>32</sup> ...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sup>33</sup>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sup>34</sup>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눅 12:22-34)

G. "Worry does not empty tomorrow of its sorrow; it empties today of its strength." Corrie Ten Boom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못하나, 오늘의 힘을 비워 버린다." 코리 텐 붐

H. We must not think about tomorrow's needs as if God will not intervene to help us. We do not usually know how He will do this, but to assume that He will not is the basis of anxiety.

우리는 내일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실 것처럼 염려하면 안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지만, 그분이 돕지 않으실 것처럼 여기는 것은 바로 염려다.

I. Jesus gave four reasons why we should not yield to a mindset of worry: we are more valuable to God than the rest of creation—birds and flowers (11:24, 27); worry doesn't benefit us (11:25); God knows all our needs (11:30); and He promises to help those who seek first the kingdom (11:31).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의 생각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른 창조물들, 새나 꽃들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이다 (11:24, 27).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11:25).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11:30).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을 도우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11:31).

## VII. BE SPIRITUAL ALERT AND WATCHFUL FOR JESUS' RETURN (LK. 12:35-48)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라 (눅 12:35-48)

- A. Jesus taught His disciples to be watchful for His return (Lk. 12:35-48). He taught three short parables on the wisdom of being watchful related to His return to earth: the watching servants (12:35-38), the watchful master over his house (12:39-40), and the faithful steward (12:41-48). Being watchful includes laying up treasure in heaven (12:15-21) and trusting God's leadership instead of simply giving in to anxiety and fear (12:22-3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고 가르치셨다 (눅 12:35-48). 그분의 재림과 관련해서 깨어있는 지혜에 대한 세 가지 짧은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12:39-40), 이것은 깨어있는 종들 (12:35-38), 깨어서 자기 집을 지키는 주인 (12:39-40),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 (12:41-48)에 대한 비유다. 깨어있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12:15-21), 염려와 두려움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것이다 (12:22-34).

- B. The parable of the watching servants (12:35-38): "Let your waist be girded" describes a man who tucked his long robe up under his belt so that he might work or to go to battle. It speaks of a person who is ready for action (Ex. 12:11; 2 Kgs. 4:29; 9:1; Prov. 31:17; Jer. 1:17; 1 Pet. 1:13).

깨어있는 종들에 대한 비유 (12:35-38):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긴 가운을 허리띠로 잡아매서 일을 하거나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출 12:11; 왕하 4:29; 9:1; 잠 31:17; 렘 1:17; 벧전 1:13).

<sup>35</sup> *Let your waist be girded and your lamps burning; <sup>36</sup> *you yourselves be like men who wait for their master, when he will return from the wedding,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they may open to him immediately.* <sup>37</sup>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m the master, when he comes, will find watching. Assuredly, I say to you that he will gird himself and have them sit down to eat, and will come and serve them.* <sup>38</sup> *And if he should come in the second watch, or come in the third watch, and find them so, blessed are those servants.* (Lk. 12:35-38)*

<sup>35</sup>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sup>36</sup>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sup>37</sup>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sup>38</sup>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눅 12:35-38)

- C. The Lord "comes" to us in two different ways—at His second coming and at our physical death. However, the emphasis of this parable is Jesus' return, not His coming for believers at their death. There were three watches in the night recognized in Israel: 6pm-10pm, 10pm-2am, 2am-6am.

주님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재림 때에 오시는 것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때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재림의 때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파수의 시간이 있다: 오후 6-10 시, 오후 10 시-오전 2 시, 오전 2-6 시

- D. The parable of the watchful master over his house (12:39-40): Jesus compared His return to the coming of a thief who comes at an unexpected time, resulting in loss for those not watching—this includes suffering loss of potential rewards (1 Cor. 3:15).

자기 집을 지키는 주인에 대한 비유 (12:39-40):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을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도적이 오는 것과 깨어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것에 비유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을 잃는 고통을 포함하는 것이다 (고전 3:15).

<sup>39</sup>*But know this, that if the master of the house had known what hour the thief would come, he would have watched and not allowed his house to be broken into. <sup>40</sup>Therefore you also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Lk. 12:39-40)*

<sup>39</sup>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sup>40</sup>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눅 12:39-40)

- E. The parable of the faithful steward is spoken to those in leadership in the kingdom (12:41-48): Jesus promised blessing in terms of ruling with Him in the age to come. This is for those who are faithful in serving, enduring persecution, making financial decisions, overcoming anxiety, etc.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12:41-48): 예수님은 장차 올 세대에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섬기는 것과 핍박을 견디는 것, 그리고 재정 사용에 대해서와 염려를 극복하는 것 등에 있어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sup>41</sup>*Peter said to Him, “Lord, do You speak this parable only to us, or to all people?” <sup>42</sup>And the Lord said, “Who then is that faithful and wise steward, whom his master will make ruler over his household, to give them...food in due season? <sup>43</sup>Blessed is that servant whom his master will find so doing when he comes. <sup>44</sup>Truly, I say to you that he will make him ruler over all that he has.” (Lk. 12:41-44)*

<sup>41</sup>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sup>42</sup>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sup>43</sup>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sup>44</sup>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눅 12:41-44)

- F. Jesus described the situation that leaders will encounter if they are unfaithful to the stewardship entrusted to them by *neglecting their assignment* (did not do His will), *abusing their authority* (beating the servants), or *being self-indulgent* (drunk).

예수님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임무들을 소홀히 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 그들의 권위를 남용하며 (종들을 때림), 방종함 (술 취함)으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만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sup>45</sup>*But if that servant says... “My master is delaying his coming,” and begins to beat the... servants and to eat...and be drunk, <sup>46</sup>the master...will come...and will cut him in two and*

appoint him his portion with the unbelievers. <sup>47</sup>And that servant who knew his master's will, and did not... do according to his will, shall be beaten with many stripes. <sup>48</sup>But he who did not know, yet committed things deserving of stripes, shall be beaten with few. For everyone to whom much is given, from him much will be required, and to whom much has been committed, of him they will ask more. (Lk. 12:45-48)

<sup>45</sup> 만일 그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sup>46</sup> ...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sup>47</sup>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sup>48</sup>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 12:45-48)

- G. With greater privilege and opportunity to receive the truth comes a higher standard of evaluation (judgment) in the age to come (Lk. 10:12-15; 11:31-32; Rom. 2:12-13; Jas. 3:1). The King gives each of His servants assignments to walk out in the different seasons of their life. Each assignment has its own difficulties including times of being mistreated. Being faithful to the King requires that in these times of pressure they do not quit the assignment that He gave them by “taking the liberty” to choose another assignment.

더 큰 특권과 기회로 진리를 받는 것은 장차 올 세대에 평가에 있어서 더 높은 기준(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눅 10:12-15; 11:31-32; 롬 2:12-13; 약 3:1). 왕은 그분의 종들에게 삶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따라 행해야 할 임무들을 주신다. 각각의 임무들은 홀대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기도 한다. 왕에게 신실함을 지키는 것은 어려움의 시간 동안 ‘제멋대로’ 다른 임무를 선택하지 않고 왕이 주신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 H. In light of the pressures related to His coming, His disciples are to be prepared for persecution and division (Lk. 12:49-53). This is one reason He emphasized being watchful and faithful (12:41-48). In context, the fire here speaks of the pressures related to His return, while His baptism spoke of His death on the cross that included Him bearing God's wrath for the sins of humankind.

그분의 오심과 관련해서 어려움에 대해 생각할 때, 그분의 제자들은 핍박과 분열에 대비해야 한다 (눅 12:49-53). 이것은 그분이 깨어있고 신실하라고 강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다 (12:41-48). 그분의 세례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본문에 나오는 불은 그분의 오심과 관련해서 겪을 어려움을 말한다.

<sup>49</sup>I came to send fire on the earth, and how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sup>50</sup>But 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with, and how distressed I am till it is accomplished! <sup>51</sup>Do you suppose that I came to give peace on earth? I tell you, not at all, but rather division... <sup>53</sup>Father will be divided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er, mother-in-law against her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Lk. 12:49-53)

<sup>49</sup>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sup>50</sup>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한가 <sup>51</sup>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sup>53</sup>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눅 12:49-53)